

“서귀포의료원, 제주대병원 위탁 어려워”

원 지사, 어제 서귀포시 읍면동장 간담회서 밝혀
“의료원 근무 하겠다는 의사 없어… 명분 필요해”

서귀포의료원을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일 서귀포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찾아가는 소통과 공감의 날-읍면동장 간담회’에서 “서귀포의료원을 제주대병원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의 의지만으로는 이뤄지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서귀포지역에서 구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응급조치에 대해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귀포의료원을 제주대병원에 위탁·운영에 대한 추진 결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지만, 운영을 맡아야 하는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서귀포의료원을 넘겨 맡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서귀포의료원 위탁 운영과 관련해 제주대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서귀포 근무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서귀포의료원에서) 근무하겠다고 밝힌 의사는 단 한 명

도 없다고 한다”면서 “제주대병원도 의사들의 서귀포의료원 근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적인 명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진료과목의 의사를 서귀포의료원에 상근하게 할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실무적인 논의나 예산 문제는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덕면 남제주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준공 차질 문제에 따른 제주도 차원의 주민 협의와 서홍동 소재 한국전력공사 서귀포지사 부지 매입에 대한 요청도 나왔다.

이상현 안덕면장은 “올해 3월 남제주 액화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가 첫 삽을 떴다”며 “그러나 지역내 5개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2020년 6월까지 준공이 어려울 것으

로 예측된다. 제주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주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 서귀포지사 부지 매입과 관련해 김형필 서홍동장은 “서귀포시 1청사와 2청사가 통합되면서 시청 주변인 서홍동 주택밀집지역에서는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전력공사 부지를 매입하는데 예산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2일 서귀포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찾아가는 소통과 공감의 날-읍면동장 간담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서귀포시 지역의 읍면동장들과 각 마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미래사업 ‘비축토지’ 매입
JDC, 내달 11일까지 접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다양한 토지수요에 대비하고 JDC 미래사업 추진을 위해 비축토지 매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토지로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위치한 경우 3300㎡이상, 도시지역 밖에 위치한 경우 3만3000㎡이상이다.

접수된 토지는 현장 및 정밀조사, 전문가 평가, 가격결정, 매매협의, JDC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매입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최종 토지 매매계약은 2020년 상반기에 체결될 예정이다.

접수기한은 10월 11일까지이며, 토지소유자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위치한 JDC 본사 3층 전략사업처를 방문해 직접 매각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JDC 전략사업처 (797-5538). 조성윤기자

자구리공원에 해양레저체험센터 건립 검토에

송산서귀마을회 “공원 축소… 위치 변경을”

도, 해중경관사업으로 추진
주민들 “항만지구에 지어야”

제주자치도가 서귀포시 문섬 일대에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구리공원에 해양레저체험센터 건립을 검토하고 나서자 송산서귀마을회 주민들이 항만 부지에 건립돼야 한다며 입지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주민들의 움직임에 도는 10월중 사업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를 연다는 계획이지만 사업 공모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해중경관지구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총 사업비 400억원(국·도비 각 50%)을 투입, 2022년까지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도는 올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사업은 육상에 조금 스킨스쿠버다이빙 교육장인 해양레저체험센터를 짓고, 육지에서 500여m쯤 떨어진 해상에 다이빙을 위한 지원편의시설인 구조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가 해양레저체험센터 부지로 자구리공원을 검토하는 데 대해 송산서귀마을회 주민들은 빼어난 해안경관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쉼터이자 여러 축제와 행사가 펼쳐지며 원도심의 특화거리로 자리잡은 곳에 건축물 신축은 안된다며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조망권과 공원 기능의 훼손을 우려하는 것으로, 마을회는 지난 6월 도에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에 부정적 입장이나 해양레저체험센터 건축 부지는 자구리공원이 아

닌 서귀포항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이같은 지역주민 입장에 제주도는 자구리공원 지상이 아닌 지하에 센터를 건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해양레저체험센터가 항만부지에 들어설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항만을 사용 중인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 조율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오는 10월 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어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산서귀마을회 관계자는 “마을주민 다수가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며 시민·관광객들의 힐링 명소로 자리잡은 자구리공원에 건축물이 들어서 조망권을 가리고, 공원 기능이 축소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해양레저체험센터는 항만부지에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올해산 제주감귤 품질관리 ‘비상’

작은 열매 많고 잦은 비로
병해충 위험 높아 현장지도

올해산 제주감귤은 작은 열매가 많고, 잦은 비날씨로 병해충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열매숙기 등 품질관리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 등의 현장지도 손길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노지감귤의 품질개선을 위한 농가들의 자율적인 열매숙기 유도과 현장지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농업기술원이 지난 20일 서귀포지역 해안 5개소, 중산간 5개소 등 총 10개소 노지감귤 생육상황을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2.5mm 작고 평년과는 비슷한 수준의 크기로 자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올해에는 착과량이 많고 1월 비대량이 0.19mm로 전년(0.4mm)보다 작아, 기준 이하의 작은 열매가 많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잦은 비로 검은점무늬병 등 병해충 발생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지감귤의 당도 상승시기에 과도한 수분공급으로 당도가 떨어지고 과실비대기 열과 발생 등 품질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10월 초까지 현재까지 따지지 못한 규격이하의 작은 열매와 중결점과(상점과, 기형과, 일소과 등)에 대한 농가들의 자율적인 열매숙기 참여 유도 및 현장지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10월 중순 이후에는 전 과원을 대상으로 수확 전까지 규격이상 큰 열매, 규격이하 작은 열매, 병해충과 등 비상품 감귤을 전부 속아내는 수상선과 작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할 예정이다.

극조생감귤 부패과 줄이기 등 품질향상을 위해 ▷총채벌레 등 흡즙해충 방제 ▷성숙기 품질향상제 살포 ▷수확 후 3-5일 예조 실시 등의 현장교육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제주시, 하반기 농어촌기금 융자 347억 신청

도 심의 거쳐 지원대상 확정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대상으로 957개소·347억원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추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은 결과 957개소의 개인 및 법인에서 347억원의 융자금을 신청했다.

주제별로는 개인신청자가 934건, 296억4300만원, 법인신청자가 23건, 50억6500만원을 신청해서 개인신청

자가 85%를 차지했다.

지원 용도에 따라 운전자금으로 918건, 310억800만원, 시설자금으로 39건, 37억원이 신청됐으며, 운전자금 신청비율이 89%를 차지했다.

사업분야별로는 농업분야 813건 221억8900만원, 축산분야 79건 67억7900만원, 수산업분야 64건 57억3400만원, 임업분야 1건 600만원의 순서로 신청됐고, 농업분야가 64%로 가장 높았다.

지원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해녀문화 전승자 54명 배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중요어업유산인 제주해녀문화 전승자 배출을 위한 제주한수풀 해녀학교 졸업식이 지난달 31일 졸업생 54명과 어촌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한수풀 해녀학교 졸업생은 지난달 4월 교육생을 모집해 서류심사를 거쳐 2개과정 67명(직업양성반 17명, 임업양성반 50명)을 선발, 5월 10일 입학식을

거졌다.

한수풀 해녀학교 입학생들은 8월 말까지 주말마다 해녀물집 이론 및 마을어장관리 교육, 현장 잠수기술 실습, 해녀보호 시책과 해녀들의 삶 등 임업양성반 학생은 총 80시간, 직업양성반 학생은 총 160시간의 교육을 이수했다.

지난 2008년부터 한수풀 해녀학교를 통해 총 614명의 교육생이 졸업했고, 이중 현재 21명이 어촌계에 가입해 직업해녀 활동 및 해녀문화 전승에 노력하고 있다. 고대로기자

제23회 서귀포칠십리가요제

서귀포칠십리축제와 연계하여 서귀포칠십리의 아름다운과 신비경을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려 주민통합을 유도하고 서귀포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함

행사명 : 제23회 서귀포 칠십리 가요제

일시 : 2019. 09. 29(일) 오후 6시

장소 : 서귀포칠십리축제 자구리공원 특설무대

주최 : 서귀포시, 서귀포칠십리축제조직위원회

세부추진계획

- 참가자격 : 만18세 이상의 제주도민
- 참가분야 : 출연자 자유 선정
- 신청기간 : 2019. 9. 2(월) - 9. 16(월) 오후 3시 마감 (주말 및 휴일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음원mp3파일 전자우편 sgq3789@hanmail.net 또는 팩스 732-3789
- 신청서는 서귀포문화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후 작성 신청 후 반드시 문화원으로 전화환락
- 예선 : 2019. 09. 19(목) 오후 3시 서귀포시민회관
- 심사기준 : 가창력, 음정, 리듬, 표현력, 태도, 관중호응도 등
- 평가방법 : 심사위원 전원 순위 합산제
- 상금 : 대상100만원, 금상50만원, 은상20만원, 인기상10만원 ※각1팀
- 시상 : 서귀포시장, 서귀포문화원장, 축제조직위원장, 축제집행위원장
- 문의 : 서귀포문화원 사무국(전화 733-3789)

칠십리축제 전통혼례도 참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문화원장

www.seogwipo.org

추석맞이 행복나눔노래한마당

서귀포 문화도시 선정기원

2019. 9. 7(토) 저녁7시
서귀포 관광극장 특별공연



※ 우천 시 매일올레시장 내 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주관 지역주민협의회

영주읍사(瀛洲吟社) 전국한시지상백일장 개최

■시교접수

* 우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33 제주우체국 사서함 26번
시단법인 영주읍사 (우편번호 : 63166)

■원고접수기한

2019년 9월 30일(당일 도착분까지 유효)
- 시교를 고선한 후 원본 그대로 제책(製冊)할 예정
이오니 서체는 반드시 해서(正서)로 기입 요망.
작품해설 첨부, 미첨부시, 고선에서 제외함

- 詩題 : 橘林秋色
- 押韻 : 基, 時, 枝, 移, 詩(支韻目)
- 詩型 : 七言律詩
- 考選基準 : 達題, 達策, 字不正, 疊字, 疊意, 失對, 蜂腰, 鶴膝 등 일반 관례에 따름
- 고선위원 : 사계(斯界)의 권위자 4인
- 입상자 발표 : 10월 중, 개별통지

문의처

대표전화 : 010-7161-9667, [064]752-0302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사단법인 영주읍사

산악인 오회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대원 모집

산사나이 오회준은 해발약 8,000m 10작을 한번의 실패도 없이 등정했으며, 남북국까지 횡단하면서 세계 산악인으로써 대한민국을 알렸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도전정신을 남기고 간 오회준님은 지금도 해발라의 품에서 아직도 도전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산악인 오회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9년 9월 15일(일) 08:00
장소	· 야구장 앞 시계탑 집결 · 서귀포점 : 08시 토평동 오회준 추모공원 집결

- 인원 : 원·선착순 40명
- 비용 : 10,000원(교통비 및 산악보험)
농협 351-1060-7931-53
사)산악인오회준기념사업회 등산교실
- 준비물 : 도시락, 식수 및 산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
- 산행코스 : 군산-안덕계곡-월라봉-황개창

산악인 오회준 그는 누구인가?

1970년 8월 16일생 1989년 2월 서귀동고교 졸업
1989년 3월 제주대학교 입학, 제대 산악부 기입
1999년 8월 20일 내달 해발라야 초호유(8,201m)등정
2000년 7월 30일 파키스탄 해발라야 브로드피크(8,047m)등정
2000년 10월 2일 파키스탄 해발라야 시사팔마(8,031m)등정
2001년 4월 29일 내달 해발라야 로제(8,516m)등정
2001년 7월 22일 파키스탄 해발라야 K2(8,611m)등정
2002년 5월 4일 내달 해발라야 안나푸르나(8,091m)등정
2004년 1월 12일 남극반2정 44일간 세계최단기록 성공
2006년 5월 1일 54일간 도보로 북극점 도달
2006년 5월 11일 내달 해발라야 에베레스트(8,848m)등정
2006년 7월 8일 파키스탄 해발라야 가시팔마 1봉(8,068m)등정
2006년 7월 31일 파키스탄 해발라야 가시팔마 2봉(8,035m)등정
2006년 9월 20일 내달 해발라야 마나슬루(8,156m)등정
2007년 배령해협 횡단
2007년 5월 16일 에베레스트 남서벽 코리안루트 개척중 캠프4지점인 7,700m 지점에서 '산사나이 하늘을 오르다'
2008년 9월 30일 체육관광청 명예장수훈(체육훈장 명예장 제51호)

사)산악인오회준기념사업회 이사장 현 학봉

• 연락처 : 사)산악인오회준기념사업회 사무국장(010-9838-6552)